

# “딸 한강이 ‘흰’에서 말한 진리 나와 같더라”

팔순에 산문집 펴낸 한승원 작가  
장흥 출신...문학 생애 자전적 고백  
병상서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 수록  
동향 김선두 작가 삽화 그려



‘꽃을 꺾어 집으로 돌아오다’

“나는 불날 마주친 신 들린 ‘산 목련’의 강렬한 흰색으로 인한 충격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서 흰색은 무엇일까. ‘나의 우주 속에서 흰색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흰색, 그것은 우주 시원의 색깔이다. 우리 삶은 그 흰색에서 왔다가 그 흰색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팅 비어 있음’의 색깔이다.”(한승원 ‘흰, 그 계 시(詩)이다’ 중에서)



한승원 작가



김선두 작 ‘꽃향기를 귀로 듣다’

같은 문학의 길을 가는 선배 작가로서 후배 문인에게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 또한 남다르다.

작가가 지식들에게 이르는 메시지는 대략 다음으로 압축된다. ‘너희 자신만의 슬픈 눈빛을 지나라. 그 눈빛으로 너희만의 풍경을 창조하라’, ‘춧불에게서 배워라. 제 몸을 태운 불로 어둠을 살라먹는 그 정신과 의지를’, ‘이념이나 정의를 위해 글을 쓰지 말고 진리를 위해 써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작가는 “월호는 화쟁(和爭)을 말했는데, 그것은 너도 옳고 나도 옳다고 하는 식의 두루뭉술한 타협이 아니고 오직 진리를 통한 화해와 화합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평생 글을 써오면서 깨달은 작가 나름의 세상을 견뎌주고 지혜롭게 사는 방식인 듯했다. 등단 52년, 어느덧 작가는 생의 말년을 지내고 있다. 작가는 문득 화장실 거울에 비친 ‘부스스한 반백의 늙은’ 얼굴에 놀라고, 이유 없이 몸살을 자주 앓고, ‘하느님이 나를 속아내려고 한다’고 직감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사유와 성찰의 시간을 보내온 작가는 ‘하느님이 속는 대로 속아지지 않겠다’며 최선을 다해 살겠노라 다짐한다는 것이다.

“나의 호 ‘해산(海山)’은 바닷가에 있는 가시적인 산이 아닙니다. 질푸른 심해 속에 암초처럼 발달한 숨어 있는 산입니다. 바다 속에 내(산)가 있고, 나는 날마다 꾸준히 그 내(산)를 탐색하며 오르곤 하는 것인데, 그 등산으로 인해 부처님의 사리 같은 각성이 나의 모래밭에 깔리고 나는 그것들을 헤아리며 삶을 영위지요.”

작가는 산문집 제목 ‘꽃을 꺾어 집으로 돌아오다’가 함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했다. ‘꽃’이 이상과 가치라면 ‘집으로 돌아오다’는 비로소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사람은 누구든 일생을 살면서 자신만의 이상과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러나 번번이 길을 잃게 되지요. 방황하고 넘어지기도 하구요. 저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 비로소 집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내 나름의 안정을 찾았다는 뜻이죠.”

책에는 이렇듯 인생의 말년을 냉철하게 목도하며 지난 삶을 반추, 이별 연습을 하는 작가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한마디로 작가 한승원이 통쾌해온 인생의 시간이 오히려 투영돼 있는 것이다.

한편 책에는 작가와 동향인 김선두 화가의 그림이 수록돼 있어 보는 맛도 쏠쏠하다. 장흥의 대지와 바다, 하늘과 바람, 꽃과 새 등이 깃든 아름다운 화폭은 잔잔한 여운을 준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완도 해역에 잠들었던 청자 장구의 울림



장구

요고

### 목포 해양유물전시관 전시

‘장고(杖鼓)라고도 하는 장구는 고대 타악기인 요고 또는 세요고에서 변형된 악기다. 장고는 명칭은 오른손에 채를 들고 치기 때문에 붙여졌다.

장구의 주 재료는 오동나무며 허리가 잘룩한 통 양쪽에 가죽을 씌워 만든다. 인도와 한국,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사용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민속악에 많이 쓰인다.

장구를 테마로 하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테마전 ‘바다의 울림, 장구’를 오는 5월 13일까지 해양유물전시관(목포) 제1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테마전에는 12세기경 완도 어두리 바다에서 침몰한 고려청자 운반선 ‘완도선’에서 발굴된 청자 장구 1점과 진도 명랑대첩로 해저에서 발굴된 장구 파편 6점이 출품됐다.

전시 소개되는 청자 장구는 길이 51.8cm로 철화 안료(물갈)로 그린 모란꽃과 넝쿨무늬가 화려하게 장식돼 있어 고려청자의 예술성과 옛

사람들의 풍류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고려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자기로 만든 장구는 오늘의 장구보다 조롱목이 좁고 길쭉하다. 또한 좌우 장구통 크기와 형태 또한 다르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고려시대 청자 장구를 통해 중국과 서역과의 교류 양상, 장구의 제작 기법, 문양, 기능, 형태 등 다양한 특징을 가늠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도기로 만든 요고 3점도 선보일 예정이다.

요고 3점은 진도 명랑대첩로 바닷속에서 발굴된 것으로 태안 마도 해저에서도 유사한 요고가 발굴됐다. 길이가 20~25cm이며 좌우 구경의 크기와 형태는 동일하다. 학계에 따르면 이러한 요고 지금까지 육상유적에서 발굴된 예는 없다.

전시장에서는 악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어 악기장이 재현한 작품과 현재 사용하는 장구 소리를 함께 비교해볼 수 있다. 재질에 따른 소리의 차이도 느낄 수 있다. 문의 061-270-2046.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아시아 문화자원 한눈에...내일부터 문화전당 전시

디지털 자료, 도서, 유물, 실물자료, 연구보고서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이 2017년 수집한 아시아 문화자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ACC는 2017년 아시아문화연구소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수집과 연구 2017’전을 30일부터 ACC 라이브리파에서 개최한다.

아시아문화연구소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창·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문화자원을 수집·연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수집 자료는 22만 5000여 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국내외 아시아 문화와 관련된 도서 및 자료 8709점을 새롭게 수집했다. 더불어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인도, 네팔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4개 지역 현지 조사를 통해 디자인, 의례, 스토리, 무형유산 등 각 주제별 연구 사업을 진행했다.

ACC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대상 프로그램 ‘목요일의 문화시계(38회 운영)’, 상영 프로그램 ‘블랙박스 시네마(141회 운영)’를 운영하고 있다.

또 아시아 문화관련 교류를 위해 ‘아랍영화제’, 국제교류전 ‘자밀예술상 4 : 이슬람의 바람’, 학술·네트워크 사업인 ‘ACCR\_Fellow’, ‘ACC 차세대 문화포럼’, ‘ACC 심포지엄’ 등을 진행해 국내외 연구자들과 함께 아시아를



김영태 작가가 촬영한 인도의 전통예예 예술.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료 관람. 월요일 휴무.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드림러너’ 운영기관 선정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단이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디어아트 체험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드림러너’ 운영기관 공모에 선정됐다. ‘드림러너’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고교-공공기관 연계 진로진학 프로그램으로, 고등학생들이 특기·적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신청해 현장을 탐방, 체험하며 진로와 진학 방향을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디어아트 기반의 특화공간을 탐방하고, 예술가와의 만남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총 3차시(각 50분)로 진행되며 ▲1차시 ‘홀로그램 공연관람’은 홀로그램 및 VR의 제작원리를 배운 뒤 홀로그램 K-POP 콘서트를 관람하고 ▲2차시 ‘미디어특화 공간

탐방’은 미디어놀이터, 미디어338, 미디어아카이브 등 공간투어로 진행된다. ▲3차시는 ‘미디어아트 작가와 함께하는 진로탐색 강의’로 학생들이 예술 분야 직업세계에 대해 살펴보고, 창작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드림러너’는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에 기록되는 등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문화재단 프로그램은 3월부터 12월까지(오전 9시부터~오후 7시) 단체 맞춤형 시간제로 연중상설 운영된다. 문의 062-670-7453~7455.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나만 믿고 따라와

#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